김제노인종합복지관-교육지원청,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노기보)의 동고동락봉사단이 지난 22일 김제교육지원청 보람드림봉사단과 함께 김제전통시장 상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미래의 나를 위해 건강한 기억력을 지키자'를 주제로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동고동락봉사단 어르신 14여 명과 김제교육지원청 보람드림봉사단 소속 공무원들이 1:1로 매칭되어 거리 행진을 함께 진행했으며, 치매 예방의 첫걸음으로 건강한 기억력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수칙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지역 어르신 봉사자가 함께 협력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손잡아 지역사회 통합의 긍정적인 모델이 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비전대, RISE 공동프로그램 간담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영진전문대학교와 '초광역권 RISE사업 공동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간 교육자원 공유 및 학점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교육 혁신을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지역 산업구조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동교육과정 개발과 온라인 교육 기반 확충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전주·대구 지역 대학 간 공동 온라인 운영방안 △학점 교류제를 통한 융합·특화 교육과정 개발 △대학별 산업기반과 강점을 연계한 공동교육 운영체계 구축 등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제시됐다.

세부 협의 결과, 양 대학은 유아교육과와 미래모빌리티학과를 대상으로 한 초광역권 공동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하고, 나노·마이크로 단위 학점 교류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교육과정과 온라인 콘텐츠는 2025년 내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학생 교류 및 학점 인정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주비전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 대학 간 상호 보완적 교육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확대와 교육 품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공동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교류와 학점 인정 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정읍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23일 샘골농협 이평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직원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감사장 수여 받은 샘골농협 이평지점 은행원 A씨는 최근 은행에 방문한 60대 여성 B씨가 8천만원 상당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고 자금 사용처에 대해 불안한 모습으로 계속 말을 바꾸자 이를 수상히 여겨 112신고를 했다.

B씨는 휴대전화로 검사를 사칭한 불상자가 전화하여,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으나 불법이라며 원격 제어앱 설치 및 02-112신고 하게 하고, 경찰관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통장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며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을 준 은행원 A씨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상훈 서장은 예리한 관찰력과 신속한 판단으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준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소방서,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고창소방서는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하며, 구급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군민 협조를 요청했다.

단순 병원 이송 요청 등 비응급성 신고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긴급한 생명 구조 활동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119구급차는 심정지, 중증 외상, 호흡곤란, 급성질환 등 긴급상황 환자를 우선적으로 이송해야 하며, 경미한 질병이나 단순 통증 환자는 일반 교통수단 또는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수군, 제18회 의암주논개상에 '장필화 이사장' 선정

논개 탄신 451주년 기념추대식 개최… 여성의 인권 · 평등 실현에 앞장 선 공로 인정

장수군은 지난 22일 오후 5시 장수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탄신 451주년 기념 의암주논개제전 '제18회 의암주논개상 추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논개의 숭고한 충절 정신을 기리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가 주최·주관했다.

이날 추대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장,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오재영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의암주논개상은 2007년부터 나라와 이웃을 위해 공헌한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매년 선정해 논개상으로 추대하는 제도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논개상에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사회활동에 적극 앞장서 한국 여성의 귀감이 되는 인물이 선정된다.

제18회 의암주논개상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학 교수이자 한국 여성학의 기틀을 세운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선정됐다.

장 이사장은 1974년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여성학과 초대교수로 부임한 이래 이화여대 여성연구원장과 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며 여성문제를 공론화하고 인권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 부임한 여성학과 교수로 아시아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개척했으며 세계 여성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는 한국여성재단을 이끌며 성평등 사업을 지원하고, 소외된 여성과 청년의 자립을 돕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논개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여성의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한 의암상 수상자의 공적을 함께 축하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앞으로도 논개님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장수군의 역사와 문화 위에 군민과 함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품격 있는 고장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식물 돌보며 되찾는 안정'… 정읍시보건소, 치유농업 프로그램 '호응'

정읍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식물을 매개로 정신질환 고위험군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샘초롱 클럽하우스'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씨앗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자기효능감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인 회원 15명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주 1회, 회기당 80분에서 90분씩 총 8주간 진행되는 실내 집단형 치유농업 과정이다. '저자극 감각 중재(물·빛·촉감·향)'를 핵심 원칙으로, 씨앗 파종부터 발아·성장·수확까지 식물의 생애주기를 직접 경험하도록 구성됐다.

지난 20일 열린 1회기에서는 '씨앗과 나의 희망'을 주제로 지피펠렛을 활용한 씨앗 파종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미니 텃밭 이식 △오픈형 테라리움 제작 △허브 손수욕·향주머니 만들기 △관엽식물 수경삽목 △다육 잎꽂이 △마이크로그린 협동 트레이 가꾸기 △수확·시식(마음챙김 마무리)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원예 활동이 아니라 식물 돌봄을 통한 정서 조절과 자기효능감 회복을 목표로 한 회복 중심 프로그램으로, 실내에서도 흙·물·빛 등 자연 자극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흙을 만지고 물을 주는 반복적 활동은 긴장과 불안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대 김누리 박사과정생, 교육부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선정

전북대학교 바이오나노융합공학과 김누리 박사과정생 (지도교수 이동원, 고분자나노공학과)이 2025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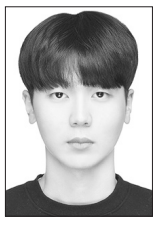
이 사업은 박사과정생이 주도적으로 논문 주제와 관련된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학문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연구비를 지원하는 국가 연구지원 제도다.

23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선정을 통해 김누리 박사과정생은 향후 2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장려금을 지원받아 '약물 내성 극복과 종양 선택적 치료를 위한 레독스 제어 고분자 전구약물 나노입자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이 연구는 기존 화학항암제가 가진 내성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차세대 표적 항암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김누리 박사과정생은 "이번 과제가 선정되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이동원 지도교수님과 NANO Medicine연구실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연구를 통해 정밀 약물전달 기술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연구자로서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스마트팜학과 학생들, 한국토양비료학회서 연구성과 인정

석승원 석사과정생


김하종 학부생

전북대학교 스마트팜학과 김태곤 교수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1학년 석승원 학생과 학부 3학년 김하종 학생이 '제57차 한국토양비료학회 정기학술발표회'에서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23일 전북대에 따르면 석승원 학생은 '전국 단위 농경지 양분 유출 모의를 위한 APEX 기반 머신러닝 메타모델 개발'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질소와 인의 유출량을 예측하는 기존 APEX 모델에 머신러닝 기법을 접목해 모의 계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또한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연계한 전국 단위 양분 유출 분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형 농업·환경 관리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하종 학생은 '흙토람을 이용한 웹 기반 노지 밭작물 통합 물·비료 처방 서비스 개발'을 통해 디지털 농업 서비스 고도화를 제안해 주목받았다. 이 연구는 기존 국가 농업 정보 플랫폼인 '흙토람' 시스템의 현장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주소 기반 격자 단위 처방 기능 개선, 작물 데이터 확장 기반 마련, 물 처방 기능의 모바일 웹 구현 등을 수행해 맞춤형 농업 처방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헌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농협 전주시지부, 감 수확 · 포장 작업 지원 '구슬땀'

농협 전주시지부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23일 전주시 삼천동의 감 재배 농가를 방문,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수확철 원활한 작업 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지부 직원과 전북본부상호금융지원단, 농신보전북센터 등 10여 명의 임직원은 농가와 함께 감을 수확하고 포장 작업을 돕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하양진 지부장은 "한해 농사의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에 많은 기관과 단체가 농촌일손돕기에 함께해주길 바란다"며, "농협전주시지부는 앞으로도 적기 영농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아 농업인과 상생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부설초, '2025 아침을 여는 등굣길 음악회' 진행

전주부설초등학교(교장 민환성)는 지난 20~22일 3일간 학교 앞 서학광장에서 '2025 아침을 여는 등굣길 음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아침 등굣길에 음악의 즐거움을 더하고, 교내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는 따뜻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부설초등학교 음악단체인 상록소리새 중창단, 전주소리결 어린이 오케스트라, 천년의 소리 국악관현악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음악회 관람객들은 "등굣길에 들려오는 아이들의 음악이 하루를 활기차게 열어줬다"며 호응을 보였다.

민환성 교장은 "등굣길 음악회가 학생들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빚어낸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예술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금동, 취약계층 이불세탁 원스톱 서비스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례)는 지난 21일,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불세탁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이불을 수거하고 세탁 후 다시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 특히 거동이 불편한 가구의 불편을 덜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세탁 지원을 넘어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발굴된 복지 욕구를 실제 지원으로 연결하였으며, 가정방문 상담과 복지연계를 병행하는 현장 중심 맞춤형 복지행정으로 추진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아영면, '사랑의 고추장 나눔 행사' 진행

남원시 아영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영임)는 지난 22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고추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부녀회원들이 이른 아침 재료 손질부터 고추장 담그기까지 정성을 다해 준비한 고추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 26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영임 회장은 "회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 정성껏 만든 고추장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